테마칼럼 | 김호진의 논제 | 이세상 e세상 | 빛고을에 살며 | 경제로 세상보기

동의보감과 내비게이션

이상길

"초기 양의학에도 황당한 이론과 치료법이 많았지만 수 백 년을 거쳐 발전해왔다. 동의보감과 대동여지도를 만든 선조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장점을 더욱 개발하는 등 애써야 할 일이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동의보감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았다고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의협은 논평에서 한의업계가 문화유산과 과학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동여지도가 훌륭한 문화유산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민족 내비게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는가"라고 비꼬았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고 과연 대동여지도와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동떨어진 것인가는 알 수 없으되 문득 내비게이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내비게이션(navigation)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의 이동을 위한 통제를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므로 '차량 자동항법장치 프로그램'(automotive navigation system 또는 Car navigation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항법 시스템은 내비게이션이라는 하드웨어 장치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송출해주는 위성시스템이 결합해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위성 시스템을 경제적,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자체보유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위성보유국으로 등록되었고 그 이후 과학위성, 통신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등 다양한 위성을 통해 우주관측, 상업통신, 위성방송, 군사통신 등 다양한 용도로 실생활에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9년 현재까지는 독자적인 발사체가 아니라 외국의 발사체를 빌려 위성을 우주로 옮겨 놓았다. 그렇기에 고흥우주센터에서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우주로 띄워 올릴 수 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된 과학기술에 힘입어 우리의 실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기에 나로호의 발사성공을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짧게 줄여 '내비'라고도 한다. 우리 말로는 '길 도우미' '길초롱'이라는 말이 있다. 모두 다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 주어 자동차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이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단순 길 안내를 넘어섰다. 소위 잘 나간다는 차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 검색뿐 아니라 다양한 주요 기능을 목소리로 조작할 수 있는 첨단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지도, DMB, 뮤직박스, 동영상 등 주요 메뉴 선택뿐 아니라, 경로취소, 경로 재탐색, DMB 채널 선택, 명칭 검색 등 상세 기능까지 목소리로 조작할 수 있다. 주변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름값 정보 서비스'도 있다. 도난 시에는 제품 동작을 중지시키는 안심 내비 기능도 제공하고 차량 안에서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 최근 국내의 모 업체는 출퇴근 시 영어학습도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LG디스플레이는 독일 벤츠의 최근 고급 사양 차량인 'E클래스' 시리즈에 내비게이션용 LCD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IT 부품 업체가 글로벌 명품 자동차 업체에 잇따라 핵심 제품을 공급하면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광주지역에서도 자동차 산업과 광 에너지산업 등 기존 산업에 더해 IT와 자동차의 결합, 디젤엔진을 뛰어넘는 광 에너지, 그린 에너지기술을 활용한 미래산업이 펼쳐지고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의보감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논평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초기 양의학에도 황당한 이론과 치료법이 많았지만 수 백 년을 거쳐 발전해왔다. 우리 전통의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후손의 몫이다"-

이는 의료기술 한 분야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이다. 동의보감과 대동여지도를 만든 선조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장점을 더욱 개발하는 등 애써야 할 일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정부도, 기업도 지방은 안중에 없는 나라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9곳이 지방에 투자계획이 없고, 3곳 가운데 2곳은 아예 관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지방기피는 앞으로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MB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불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의 62.6%가 '투자계획이 없으며 관심도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방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6.3%에 불과했다. 기업의 90% 이상이 지방에 투자 계획이 없거나 계획된 투자조차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지방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상의는 국내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요인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극히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지방의 기업환경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지방의 투자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64.9%)거나 미흡하다(30.9%)고 답했다. 지자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기업이 지방에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려기 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있다. 기업의 지방기피를 정부가 앞장서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세제감면, 각종 인센티브 확대,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등 지방투자 여건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 뒤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도 늦지 않다. 기업도 경제위기를 빌미 삼아 눈앞의 제 잇속만 챙겨서는 안 된다. 지방 없는 수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 110만명시대 국민인식 달라져야

대한민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2.2%인 11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에는 각각 1만5천659명, 3만309명 등 총 4만5천96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인력 유입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외국인 노동인력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밖에 없다.

국제결혼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결혼이 3만6204건으로 전체 결혼의 11.4%에 이르렀다. 농촌 지역은 3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 가정 일정도로 주변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0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만 16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외국인에게 불리한 면이 적지 않다.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아직도 피부색으로 차별하고 혈통주의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결혼 이주자들의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언어·문화적 이질감 못지않게 2세들도 사회적응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많은 외국인들을 이방인으로 방치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외국인들이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배타심과 경계심을 풀고 이해와 포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일민족의식을 뛰어넘어 다른 인종, 문화, 가치를 껴안으며 조화와 공존의 지혜를 발휘할 때다.

종교칼럼

김선명

지리산 둘레길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몸을 움직이는 것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기계처럼 공부하고 머리 쓰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한다.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을 만들고 마음은 경쟁으로 삭막하게 한다. 그저 머리만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지난주에 이틀 동안 가족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왔다. 이 길은 지리산을 둘러싼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의 80여 개의 마을을 잇는 300여km로 옛 선조들이 옆 마을에 놀러가던 마실길이요, 장 보러 가던 옛길을 고리로 연결한 둘레길이다. 현재는 5구간이 열려 있는데 그 중 두 구간을 걸었다.

숲길과 논둑길, 고갯길, 강변길, 마을길을 따라 바람 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진초록의 산하를 걸으며, 강렬한 여름꽃의 향연과 찰진 대지의 푹신함을 느꼈다. 가랑비가 지나며 산허리에 걸린 운무(雲霧)는 한 폭의 수묵화였고, 쉽게 속살을 보여주지 않는 지리산의 정상 천왕봉을 때때로 바라보며 느릿느릿 걸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만큼만 간다는 마음으로 쉼터를 만나면 지친 다리를 쉬었다.

그런데 가족과 걷다 보면 걸음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혼자였다면 서너 시간이면 갈 길을 온종일 걸어야 한다. 그래도 여유있는 것은 걸음 폭을 조절하듯 눈높이를 같이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걸음을 맞춘다 해도 때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동안 혼자서 걷기도 한다. 이때는 오롯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 많지만 정작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은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주변을 돌아볼 시간은 더더욱 없다. 사람의 가치가 돈과 지위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모두가 최고를 향한 무한경쟁의 길 위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산 정상이 일직선으로 오르는 정복의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성공과는 멀게 끝없이 돌아가는 것만 같은 인생의 둘레길엔 돌아오며 몸과 마음을 깊고 넓게 키울 수 있는 선물이 가득하다. 그렇기에 최고와는 거리가 멀다 해도 최선의 삶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느리게 걸으며, 주위의 산하를 즐겨 구경하고 함께하는 이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걸어 보라. 발 좋은 사람이 되어 보자.

차제에 지리산 둘레길의 구례 구간도 어서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영산교당 김선명 교무〉

기고

배홍철

보호관찰, 정부·민간 공조 절실

1989년부터 실시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인을 교화·개선해 건전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재사회화시키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은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개인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제재조치로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일부 대상자도 있지만 본래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는 전체 9만1천1명 중 전문직 1천29명, 사무직 1만4천500명,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9천13명, 학생 1만3천914명, 무직 2만9천275명 등이다. 이 중 무직자가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및 단순노무직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보호관찰대상자의 직업별 현황은 한국사회의 보호관찰제도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할 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무시하고 법규의 이행만을 강제한다면 보호관찰은 법규위반자를 재생산하는 제도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진단과 치료·회복적 측면에서 접근해 지원하고 관심과 배려가 주어진다면 대상자 또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선량한 이웃으로 거듭날 것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전국의 54개 보호관찰소별로 원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원호위원회는 무직자에게 취업 및 직업훈련 알선, 질병이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의료 지원, 빈민과 학생에게 경제적 구호와 장학금 지급 등의 활동을 펼칠 것이다.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및 청소년 관련 부서장,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장, 대학교수, 기업인, 의료 관련 기관장 등이 소속된다. 이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협의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원호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적응과 재범 방지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계층간 갈등도 해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범죄예방 활동은 과거에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시대가 발달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지도·원호·범죄예방 활동의 전개를 통해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방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 법에는 또 모든 국민과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실제 정부와 민간이 힘과 지혜를 모을 때 범죄예방정책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원호위원회 구성원과 관련된 각 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無等鼓

당근의 비밀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은 당근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고 믿었다. 로마 황제 칼리굴라(AD 12~41 재위)는 원로원 의원들에게 만찬을 베풀면서 당근으로만 만든 음식을 대접했다. 동물처럼 발정을 일으켜 음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또 당근은 원래부터 오렌지색이 아니었다. 원래 색깔은 흰색, 빨강, 노랑, 녹색, 검정 등 다양했다. 네덜란드인들이 황실의 색깔인 오렌지 색깔을 만들기 위해 교배에 성공한 뒤 오렌지 색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당근을 좋아하는 국민은 영국인이다. 영국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400년대부터다. 처음에는 야채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영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당근 먹기 운동을 벌였다. 건강에도 좋고 특히 야맹증 예방에 좋아 등화 관제 때 불을 꺼 사방이 깜깜해도 잘 보인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당근은 날로 먹기도 하고 끓이거나 쪄먹는다. 잘게 썰어서 야채 수프에 넣거나 갈아서 주스로 마시기도 한다. 당근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체내에 흡수된 다음 비타민 A로 바뀌는 카로테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항암 작용을 하는 팔카리놀 성분도 들어 있다.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 칼륨 등 무기질이나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다.

대표적인 서양식인 비프 스테이크엔 먹기좋게 잘라서 삶아낸 당근이 꼭 나온다. 물에 삶는 것은 당근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고 씹기에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영국 뉴캐슬 농대 커스텐 브란트 박사팀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리 잘게 자르는 것보다 통째로 삶아 먹을 때 당근이 갖고 있는 항암 효과가 2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째로 삶으면 물과 직접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 영양분의 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은 다음에 썰어내면 맛도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로 입맛이 떨어지는 요즘 밥상에 당근요리를 올려보면 어떨는지…

/김일환여론매체부장 kih8@

소비자 눈 속이기 불량품 판매는 '소탐대실'

그동안 전세를 살다가 어렵사리 자그마한 집을 하나 장만했다. 몇 가지 가구를 바꿀 생각에 광주시내에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구거리에 가서 소파를 하나 구입했다.

배달된지 보름 후 소파를 이동하다 보니 뒷면에 긁힌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다. 뒷면이 검은색이라 처음엔 몰랐는데 검은 매직으로 군데군데 칠해져 얼룩져 있었다. 처음에는 소파용 무늬인 줄 알았으나 찬찬히 뜯어보니 제작 후 움직이다가 살짝 긁히자 거기를 땜질한 게 분명했다.

고객을 우습게 알고 판매하는 것에 급급해서 불량품을 판매한다면 지금 당장은 매출이 늘지언정 다가올 미래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쪽에서 딴소리를 할까봐 얼른 전화를 걸어 사실을 이야기 한 뒤 당장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종업원이 그럴 리 없다며 펄쩍 뛰면서 우리 쪽에서 실수로 긁힌 뒤 딴소리 하는 거 아니냐는 투로 말하기에 너무 기가 막혔다. 그러나 잠시 후 상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은 뒤 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죄송하다며 정중히 사과하고 얼마후 소파를 새 걸로 바꿔주었다.

한순간의 실수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고객에게 항상 이렇게 속임수 판매를 하지나 않는지 염려가 돼서 글을 올려본다.

▲이금숙·광주시 서구 농성동

골목길 '쓰레기 불법 투기'는 양심 버리는 것

최근 직장 때문에 원룸 생활을 좀 했다. 내가 거처하던 원룸은 반지하라 방에서는 창문이 높지만 밖에서는 사람 허리 높이에서 방안이 보인다. 그런데 창문 옆 전봇대에 있는 쓰레기 모아두는 곳에 언제부터인가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가 넘쳐났다. 빈 페트병과 맥주병들, 젖은 음식 쓰레기와 담뱃재, 과일 껍데기까지 하루 만에 이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이렇다 보니 더운 여름철에 역한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 모기가 들끓어 창문 열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

누가 버렸을지 모를 쓰레기라고 해서 거기다가 "나도 버려도 괜찮겠지" 하며 그대로 내다 버리는 것은 양심을 내다버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한번 쓰레기로 더럽혀지면 그곳은 웬만해서는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봉투 값 몇 푼을 아끼려고 그러는 행동은 결국 다른 많은 주민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양심껏 살았으면 좋겠다.

▲최인준·광주시 북구 운정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